



문화체육관광부에 출판인쇄산업과 설치 인쇄업계 숙원 ... “업계발전 전기될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에 출판인쇄산업과가 생겼다. 이에 따라 인쇄문화산업의 정부지원과 정책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관광부가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면서 문화콘텐츠산업실에 출판인쇄산업과가 생긴 것. 특히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지난 1월 20일 발효되고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가 곧 출범할 예정이어서 출판인쇄과 신설과 함께 인쇄문화산업 진흥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우리는 그동안 정부직제에 인쇄과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면서 “지난해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인쇄과 설치를 정부에 재차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이제 법이 제정되고 진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출판인쇄과까지 설치되어 우리 업계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말하고 “더욱 단합하여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고 첨단산업으로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3일 본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새로운 조직체계를 확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문화부는 기존 2실2본부3국5단 체계에서 2차관3실5국2단11관62개과로 바꾸었다. 본부직원도 516명에서 621명으로 늘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획조정과 문화콘텐츠, 문화정책, 관광, 예술, 도서관정보정책을 맡는 1차관(김장실 전 문화관광부 중무실장)과 ▲종무, 체육, 홍보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을 맡는 2차관(신재민 당선인 비서실 정무기획1팀장) 등 복수차관제에 따른 업무를 분리한 점이다.

1차관은 문화·콘텐츠·관광 정책을, 2차관은 종무·체육·전 국정홍보처 관련 정책을 맡게 된 것이다. 특히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새 정부의 정책의지도 강하게 반영됐다. 과거 문화산업본부와 문화산업진흥단, 문화미디어진흥단으로 나뉘어 있던 업무를 문화콘텐츠산업실로 확대개편하면서 국장급을 1개 더 추가했다. 콘텐츠정책관(과거 문화산업진흥단), 미디어정책관(과거 문화미디어진흥단) 외에 ‘저작권정책관’을 두기로 한 것.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콘텐츠산업실에 국장급을 3명



사진은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한복, 한글, 김치, 불고기, 불국사, 석굴암, 태권도, 고려인삼, 탈춤, 종묘제례악, 설악산, 세계적예술인



두기로 한 것은 그만큼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콘텐츠산업실에는 ▲문화산업정책과 ▲영상산업과 ▲게임산업과 ▲콘텐츠기술인력과 ▲콘텐츠진흥과 ▲전략소프트웨어과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 ▲미디어정책과 ▲방송영상광고과 ▲출판인쇄산업과 ▲뉴미디어산업과가 속하며 별도의 국장급인 ▲콘텐츠정책관, 미디어정책관, 저작권정책관을 두고 있다.

또 다른 문화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정책홍보관리실과 중무실만 있었는데 이번에 기획조정실과 중무실외에 문화콘텐츠산업실로 확대개편됐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산업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정책실과 함께 사실상 네트워크와 플랫폼, 콘텐츠를 아우르는 융합IT에 대한 정책을 만들 전망이다.

한편 이번 기구개편에서 문화부의 소속기관은 9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늘었다. 국정홍보처의 국내외 언론 기능이 문화부로 흡수되면서 해외문화홍보원과 한국정책방송원이 문화부 소속으로 이관됐다.

유인촌장관 취임사 요지

▲전통문화는 철저히 우리 손으로 보존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세계와 만나겠습니다.

▲순수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장을 펼치겠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적용하지 않고 투자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영역을 넘어 패션, 영상, 디자인, 음식으로 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으로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을 위해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수많은 축제를 정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 발굴이나 제도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류의 새로운 전환에 대해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체육분야에서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인재를 육성하여 스포츠 외교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클럽활동을 장려하는 전국규모의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약력

- 1970. 2. 한성고등학교 졸업
- 1974. MBC 6기 공채탤런트
- 1980. 10.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연극영화학과
- 1986. 8. 중앙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문학석사)
- 1990. 07. 한국방송연예인노동조합 위원장
- 1996. 01. 극단 유 대표
- 1999. 10. 중앙대학교 극장장
- 2000. 09.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교수
- 2001. 09. 중앙대학교 아트센터소장
- 2002. 03. 산림청 산림홍보대사
- 2002. 10. (재)환경재단 이사(현)
- 2004. 03.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 2007. 09.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부교수(현)
- 2008. 01.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 2008. 01. 제17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